

건축미래에 희망을

The Aspiration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김무권 / (주)현대건축사사무소
by Kim Mu-Kwon

며칠전 대구에서는 지난 2월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중앙로지하철 운항이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온 나라가 부동산문제, 어려운 경제, 청년실업, 북핵, 이라크파병, 독일에서 귀국한 어느 교수의 이야기, 항상 되풀이되는 부정안 정치자금 등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필자는 이 가을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날씨뿐만 아니라 올해는 흉년이긴 하나 가을 들녘에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결실의 계절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각 대학마다 졸업작품전이 열리고 요즘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축대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건축대전 등 연례적인 건축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 건축계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얼마 전 어느 대학 졸업작품전 행사에 초대되어 특강을 한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의 딱딱한 수업보다 장소부터 자유로워진 분위기에 다소 흥미로운 이야기꺼리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모습들이었다. 지금도 나는 강의를 듣던 학생들의 표정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무더운 여름방학부터 밤잠을 세우며 작업해 온 작품을 생전 처음 남들한테 선보이는 전시회장에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나마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을 가진 그 눈망을 앞에서 지금의 건축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하기 좋은 이야기만 했기 때문이다.

진정 그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터놓고 해줄 건축 미래는 없는가.

대학들이 경제원리에 의해 제도판과 P.C 몇 대로써 공간만 주어진다면 정원을 채울 수 있는 학교운영에 경제적인 학과를 만들다 보니 건축과가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배출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다.

건축을 문화로서 여기지 않고 모든 건축을 건설로, 심지어 부동산으로 가치 판단하는 세태를 탓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사용자가 건축을 잘 이해하여 좋은 건축물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우리 건축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설계업무를 일정한 상품 값 취급하듯이 무조건 입찰로 낮은 가격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도도 시정되어야 되겠다.

낮은 설계비는 외주비의 삭감, 건축설계의 질저하 원인으로 결국은 건축주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뿐 아니라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설계 시공 일괄방식의 턴키제로 설계업체를 선정하게 함으로 대형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만이 일을 수주하게 하고, 그로인해 건축물의 질이 저하되고 설계자가 건설회사의 시녀노릇하며 중소설계사무소와 지방설계사무소는 일할 기회부터 박탈당하는 제도 또한 고쳐져야 한다.

특히 설계 시공 일괄방식은 설계자가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의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설계자가 시공현장에서 배재되어 결국은 건축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지극히 모순된 제도로 언제까지 우리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몇몇 대형건설업체가 중심이 되어 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건축제도가 바로 잡힌다면 실적이 없는 소형설계사무소의 젊은 건축사들이 턱없이 낮은 설계비를 받으며 부실설계와 감리로 일반인들의 지탄을 받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새건축사협회가 만들어져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가 둘로 갈라진 상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새건축사협회가 내세우는 주장이나 뜻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존 대한건축사협회가 회원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의 구심점이 될 건축사협회도 차제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비단 새건축사협회 뿐 아니라 이미 결성된 건축 3단체 협의회(FIKA)가 관련단체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기득권에 대한 미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힘을 합쳐 세계수준과 동등한 건축 교육제도와 건축사제도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건축사에 대한 재교육, 교육인증원설립, 설계입찰방식에 대한 연구, 건축사인턴과정, 건축사 시험제도 등 모든 관련제도와 법령에 관해 연구하여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건축사 집단만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건축설계 시장진출의 계기가 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건축설계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상품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렇게하여 허물어진 건축계의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겠다. 어렵지만 후배들의 양성에 노력하여 건축의 맥을 잇자. 맥이 단절되면 시스템이 붕괴하기 때문이다. 미흡하지만 이제 건축사 영역대가기준도 정해졌다.

마침 2004년 전국 건축사대회를 개최기로 한다는 소식이다. 건축사대회를 개최한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지방에서까지 수백대의 버스가 동원되는 집단 이기적인 대회가 유행처럼 있어 왔다. 그때마다 우리 건축사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참고 묵묵히 일해 왔다.

이제 함께 모여 화합하고 단결하자. 단지 집단 이기적인 대회가 아니라 건축계 전반에 희망을 주고 회원들에게 사기를 높이는 대회가 되도록 하자.

이제 터무니없는 낮은 설계비로 제살을 깎는 덤핑도 그만하자.

일이 적으면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여 좋은 건축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신뢰구축을 하자. 대형 설계사무소와 시스템이 구축된 사무실은 건축계 전체를 위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전통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일의 수주와 설계비 덤핑을 하지말자.

젊은 건축사와 건축학도들에게 사기저하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축계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제 곧 건축계에 첫발을 디딜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ㄷ

* 이 글의 내용은 우리협회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